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1-36
<https://doi.org/10.29212/mh.2022..12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 운용 고찰

류의연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목 차
1. 서 론
 2.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운용
 3. 화력운용 분석
 4.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1951년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 기간 발생하였던 전투 중,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 용문산 전투에서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9군단의 화력 운용을 분석한다. 기존 전투사 연구는 기동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화력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미진하였다. 전쟁 전반에 걸쳐 화력이 중요하게 운용되었던 6·25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군과 유엔군 포병의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투상보와 국방부 및 육군의 공간사, 포병 참전용사 증

언록, 중공군 기록과 소련 군사고문단 보고서, 미군이 6·25 전쟁 당시 활용했던 1944년 야전포병 전술 교범과 미 제9군단 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운용을 분석한다.

용문산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교과서적인 화력운용, 지형과 기상의 제한사항을 극복하려는 노력, 압도적인 포병 전력, 충분한 군수지원을 바탕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다. 화력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으나 고착되지 않은 유연한 화력 운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화력 운용에 힘입어 국군 제6사단 제2연대는 3배에 달하는 중공군 제63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국군 제6사단, 미 제9군단, 용문산 전투, 화력 운용, 포병

(원고투고일 : 2021. 6. 28,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서론

6·25전쟁은 화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전쟁이다. 중공군 제5차 공세부터 정전에 이르기까지 미 제8군을 지휘했던 밴 플리트 장군(Van Fleet, James Alward, 1892-1992)은 “가능하면 화력으로 해결하라!”¹⁾라고 명령할 정도로 화력을 중시하였다. 특히 중공군 제3차 공세 이후로는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이 전장의 승패는 물론, 정전회담의 진행까지 좌우할 정도로 전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화력 분야에 대한 전투사 연구는 미진하였다. 화력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력지원체계와 통신 운용, 대화력전, 작전지속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투사 연구는 기동부대 위주로 이루어졌고, 화력운용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드물다.

용문산 전투는 중공군 제5차 제2단계 공세(이후 중공군 5월 공세) 기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중공군의 대규모 돌파와 연계하여 중서부전선에 위치한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중공군 제19병단과 미 제9군단이 벌인 전투 중 하나이다. 용문산 전투는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제5차 제1단계 공세(이후 중공군 4월 공세) 기간 발생했던 사창리의 패배를 극복하고, 국군 최초로 중공군을 격퇴함과 동시에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막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 이후 이어

1) Paul Braim 저, 육군교육사령부 역,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 (계룡: 육군교육사령부, 2001), p. 407.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 534.

지는 파로호 전투로 중공군은 24,141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7,905명이 포로로 잡히면서 전선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엔군 축출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지구전과 제한전으로 전환하여 정전회담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6·25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전투이다.³⁾

이 전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국군 제6사단의 장도영 사단장(張都暎, 1923-2012) 이하 전 장병의 결사 정신과 제2연대의 고수방어, 국군 및 유엔군 포병과 공군의 강력한 화력지원으로 중공군의 과상공세를 격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강력한 화력으로 중공군의 대공세를 격퇴할 수 있었다고 모든 연구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용문산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중공군 5월 공세 중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 운용을 분석하여 당시 국군과 유엔군 화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6·25전쟁 전투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기동부대의 관점에서 전투의 배경과 경과를 상세히 다루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까지 제시하였으나, 화력운용에 있어서는 강력한 화력을 지원 받았던지,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1952년의 백마고지 전투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포탄과 폭탄이 떨어져 산의 높이가 낮아졌다고 할 만큼 유명한지라 나중남⁴⁾, 조남준⁵⁾ 등에 의해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 557-558.

4) 나중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105호(2017): pp. 45-93.

5) 조남준,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포병운용을 중심으로”, 『군사』 제117호(2020): pp. 47-92.

관련 참전용사들의 증언도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의 공간사, 포병학교에서 발간한 『포병 전투사례집』, 온창일의 『한민족 전쟁사』에서는 “밴 플리트 사격” 효과와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적시 적절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운용된 사실만 짧게 나열하거나 전투의 결과만을 가지고 적의 피해나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과정과 그 속의 문제점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83년 국방부에서 발간된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화력 운용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주로 인물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출처가 불명확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통찰력 있는 이해 또한 제공해 주지 못한다. 나중남은 국군 제2연대가 상급부대 포병 화력지원에 힘입어 적을 격퇴하였으며 강력한 화력지원으로 용문산 전투의 승리를 이루어냈다고 주장하나, 공간사와 마찬가지로 화력의 세부적인 운용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⁶⁾

중공군 공간사를 번역한 국방부의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권』과 육군 군사연구소의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에서는 용문산 전투와 이어서 발생한 화천 저수지에서의 참패를 기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용을 부풀려 미군과 국군의 수 개 대대를 격멸하였으나 군수지원의 한계로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철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명복⁷⁾과 최영근⁸⁾은 중공군의 입장에서 용문산 전투를 분석하고 그들의 전술과 패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화력운용

6)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서울: 양서각, 2018), p. 278.

7) 정명복, “6·25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군사』 제71호 (2009): pp.111-149.

8) 최영근, “6·25전쟁 용문산 전투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중공군의 패배 요인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7집(2019): pp. 115-142.

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화력의 결과만을 강조하거나 기동부대의 입장에서 화력을 언급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중공군에 대한 연구나 그들의 공간사에서도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운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용문산 전투 당시 국군 제6사단 직접지원⁹⁾ 포병부대인 제27포병대대 작전장교를 역임한 예)대령 고기환이 “나는 포병의 전사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전투가 화력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전사 속에 화력지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¹⁰⁾라고 말한 것과 같이 포병의 전투사는 아직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거드먼슨(Bruce Gudmundsson, 1959-)은 미군이 화력지원을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격렬하게 작동하는 세부적인 중간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스위치를 누르거나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과 같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¹¹⁾ 6·25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화력 운용에 대한 미군의 포병 운용 교리와 지휘통제 체계, 지상군과 공군의 협조관계, 무기체계, 군수지원체계까지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은 1차 사료인 국군의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포병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모은 『포병과 6·25전쟁

9) 포병은 화력지원관계 설정을 통해 기동부대에 대한 지원 책임을 지게되며, 직접지원, 화력지원, 일반지원 및 화력지원, 일반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직접지원은 지원부대가 지정된 특정부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군본부, 『야전교범1-1 군사용어』, (계룡: 육군본부, 2019), p. 183.

10)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2), p.29.

11) Bruce Gudmundsson 저, 김여흥 역, 『포병역사(On Artillery)』, (서울: 도서출판 제일, 1999), pp. 154-155.

증언록』과 소련의 입장에서 유엔군의 화력 운용을 평가한 라주바예프(Razuvaev, Vladimir Nikolaevich, 1900-1980)의 보고서 등을 추가로 참고한다. 특히 미군의 1944년 야전 포병 교범과 미 제9군단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유엔군의 화력지원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군 화력 운용과 중공군 포병에 대한 분석, 작전지속지원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본 뒤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범위는 중공군 4월 공세가 종결된 1951년 4월 30일부터 용문산에서 중공군 제63군을 격퇴하고 유엔군이 공세로 이전하는 1951년 5월 21일까지로 한다.

2.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운용

용문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양평 북방에 위치한 1,157고지로, 이를 중심으로 북서 방향으로 353고지와 울업산 등이 북한강까지 이어지며, 북동 방향으로는 나산, 장락산, 559고지 등이 홍천강까지 이어진다.¹²⁾ 작전지역은 산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산악 기동을 주로 하는 중공군에게는 유리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에게는 관측과 사계 확보가 어려워 불리하였다. 다만 용문산을 국군 제6사단이 장악하고 있어 중공군을 감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중공군에게 피탈 시에는 아군의 전선이 양분되어 각개격파 당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용문산 12-17km 북쪽으로는 북한강과 홍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으며, 이 공간을 사수해야 중공군의 양평, 여주를 거쳐 충주로 향하는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¹³⁾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p. 531.

13)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p. 173.

가. 용문산 전투 개관

핑더화이(彭德懷, 1898-1974)는 4월 공세에서 작전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으로 인해 막대한 병력 및 장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4월 공세에서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화력이 열세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을 점령하는 것보다 유생역량을 섬멸하는 것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다는 전쟁 목표 달성에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핑더화이는 중동부 전선에서 한국군을 섬멸함으로써 미군까지 포위소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9병단을 조공으로 설정하여 서부 전선의 유엔군 주력이 중동부 전선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¹⁴⁾

송스륜(宋時輪, 1907-1991)이 지휘하는 중공군 제19병단은 서울 동쪽에서 전투력을 집중해 중서부전선의 유엔군을 견제하고자 하였다.¹⁵⁾ 병단의 주력은 청평천 북서쪽에 집결한 뒤 공세가 시작되면 한강을 도하하여 전과를 확대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의도로 푸충비(傅崇碧, 1916-2003)가 지휘하는 제63군과 예하 3개 사단(제187, 제188, 제189사단)을 용문산 북쪽 북한강과 홍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전개하였다.

중공군 4월 공세를 저지한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30일, 현재 점령중인 노네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위력수색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취합된 정보판단을 기초로 중공군의 공세가 중동부 전선을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p. 499.

15) 위의 책, p. 503; 육군 군사연구소,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7) p. 103.

향할 것이라는 점과 이전처럼 축차적으로 중공군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정전회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따라서 철수와 지연이 없는 방어작전을 통해 노네임선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서측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이 배치되었다.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 4월 공세 시 사창리에서의 패배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용문산 일대로 이동한 상태였다.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장군은 손실된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¹⁷⁾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신적 재무장을 강조하였다. 예하 연대는 용문산(1,157m)을 중심으로 서쪽에 제19연대, 동쪽에 제7연대를 배치하여 노네임선을 따라 주방어지역을 형성하였고, 북쪽으로 12-17km 떨어진 북한강과 청평천, 홍천강이 합류하는 지역 일대에 제2연대를 추진 배치하여 전투전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연대 예하 대대는 각각 도하 예상 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대대는 북한강을 감제할 수 있는 울업산(381m)을 점령하여 연대의 좌전방을 담당하였고, 제1대대는 홍천강을 감제할 수 있는 미사리 부근의 559고지를 점령하여 우전방을 담당하였다. 제3대대는 연대의 예비로, 울업산 후방 353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¹⁸⁾ 축차 진지는 제1대대 나산(628m), 제2대대 427고지로 선정하여 명에 의거 최초진지에서 철수 후 점령하도록 하였다.

16) 위의 책, p. 510.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441.

18) 위의 책, pp. 552-5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pp. 531-532.

중공군의 공격은 1951년 5월 17일 야간 제63군의 1제대 사단들이 북한강과 홍천강을 도하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군 제2연대 우전방을 담당한 제1대대는 중공군이 도하하는 시점부터 대대가 보유한 박격포와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요청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2연대 좌전방에서는 중공군이 나룻배 등을 이용해 북한강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제2대대가 적극적으로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중공군의 도하 수단을 모두 파괴하였다. 도하가 불가능해진 중공군은 막대한 병력 손실을 감수하고 유엔군에 의해 감제되고 있던 청평담 제방을 이용해 강을 건넜으나, 국군의 신속한 조명사격과 최후방어사격으로 저지되었다. 중공군 일부가 재차 공격하였으나 국군은 다시 한번 적시적인 화력 유도를 통해 공격을 격퇴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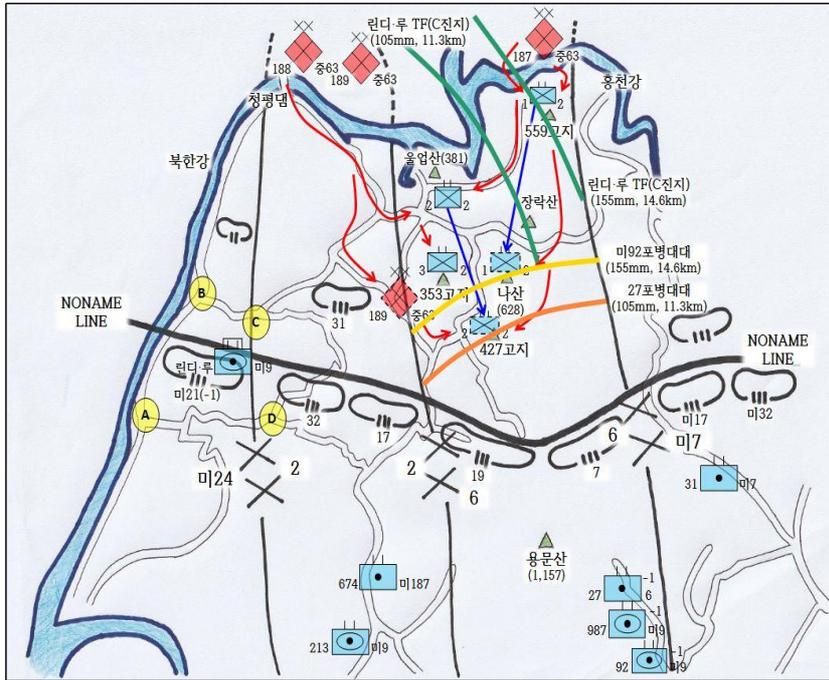
중공군 제63군은 국군 제2연대의 강력한 저항과 화력지원으로 인해 경계지역을 주방어지역으로 오판하였다. 중공군은 5월 19일 새벽부터 주력을 투입하여 돌파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국군 제2연대는 축차진지로 후퇴하였으며,²⁰⁾ 같은 날 20시부로 중공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한때 국군 제2연대 방어진지를 일부 돌파하여 국군 제6사단 주방어지역 전방 3-4km 지점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예비부대까지 모두 소모한 중공군 제63군은 공세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²¹⁾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p. 75-82.

20)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p. 4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p. 531.

21) 위의 책, p. 115.

< 그림 1 > 국군 제6사단 작전지역 상황도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8권, p. 553에 추가하여 작성.

나. 중공군의 화력운용

용문산 전투에서의 중공군 화력운용은 중공군 전술에 대한 자료와 관련 연구, 중공군 참전자의 증언 및 중국과 소련에서 작성한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근의 연구에 따르면, 중공군은 1개 군이 공격 시 225문의 화포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63군이 보유한 화포 역시 수량이 충분했을 뿐 아니라 국군 제6사단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다음 장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준비사격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포

병 전력이 우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²²⁾ 5월 공세에 참여했던 중공군이 11개 군 규모였으므로 약 2,500문이 공세에 참여했을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공군 보병사단은 일반적으로 1개 포병대대, 총 12문의 38식 야포 또는 일본 산포를 보유하고 있었다.²³⁾ 용문산 전투 이후 생포된 중공군 제63군 제187사단 소속 포로들이 패주과정에서 사단 산포 12문 중 4문만을 회수하였다고 증언한 점과²⁴⁾ 1951년 3월 이후 소련으로부터 곡사포를 본격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9월에 이르러서야 1,300여 문 수준이 되었다는 점도²⁵⁾ 중공군의 포병 전력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중공과 소련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공군 제5차 공세 준비과정에서 새로 투입된 각 병단은 장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화포는 부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소련 군사고문단은 중공군의 문제점이 화력운용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5월 공세 종료 직후인 1951년 6월 16일, 소련 군사고문단이 총참모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공군은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포병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병사단의 대부분은 포탄 부족²⁷⁾과 사격술이 부재하여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²⁸⁾고 기록하고 있

22) 최영근은 국군 사단이 보유한 화포의 수가 76문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1952년 이후 포병 전력이 증강되기 전까지 국군 사단에는 1개 포병대대(15-18문)만 편성되어 있었다.; 최영근, (2019), pp. 129-130.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무기』 2권, p. 117; 김기준, “6·25전쟁 분석을 통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39.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157.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무기』 2권, p. 131.

26) 육군 군사연구소,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 pp. 91-92.

27) 당시 중공군은 보급능력 부족으로 탄약을 도수운반 하였으며 문 당 20발 정도를 휴대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책, p. 117; 김기준, (2006), p. 39.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226-227.

다. 종합하여 평가해보면 중공군의 5월 공세 중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 제63군이 활용 가능한 화력은 미 제9군단의 가용 화력 대비 열세였으며, 화력운용 측면에서도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운용

국군과 유엔군은 강력한 화력만이 중공군의 막대한 병력을 동원한 제과식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에 강력한 화력계획을 수립하였다. 5월 12일 미 제9군단 포병여단은 방어작전을 위한 화력계획 작성을 완료하고 예하부대에 분배하였다.²⁹⁾ 당시 국군 제6사단 직접지원 부대인 제27포병대대 작전장교 직책을 수행했던 예)대령 고기환은 “적의 접근로와 사주방어를 위한 화력계획으로 화력집중점 약 100여 개를 만들어 배포하고 사전에 제원을 산출하여 사격하도록 준비하였다. 따라서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³⁰⁾, 미 제9군단 포병여단의 기록과 참전용사의 증언이 일치하는 바, 사전 치밀한 화력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 제9군단이 국군 제6사단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포병은 6개 대대 이상이었으나, 진지 위치와 사거리를 고려하면 그보다 적은 포병만을 지원할 수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의 전투유선망³¹⁾을 통해 제27포병대대가 증원포병을 통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 제7사단과 유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과 당시 제2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박정호 중령이 “인접 사단의 포병부대인

29) IX Corps Artillery, *Book I, Command Report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 12.

30)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p. 37.

31)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p. 492.

미 제31포병대대(미 제7사단 예하 포병대대) 등이 동원되어 집중포격을 가했다.”라고 증언하고 작전과장이었던 김정희 대위가 “인접 사단의 포병연락장교들이 자진해서 사격지휘본부로 찾아와 협조해주고 군단 포병이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우리 천막은 초만원 을 이루었다.”고 증언한 점³²⁾ 등을 고려해 볼 때, 미 제7사단의 포병도 지원 해주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 1951년 5월 18일 기준 포병부대 임무 현황

부 대	소 속	임 무	27대대와의 관계
린디.루 특임대	미 제9군단 포병	18·27대대 지원(Supported)	화력증원
제27포병대대	국군 제6사단	사단 직접지원	-
제92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미 7사 포병·제27포병대대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³³⁾	화력증원
제987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화력증원
제213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18·27포병대대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화력증원
제674포병대대	미 제18연대전투단		화력증원
제17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미 24사 포병·린디.루TF·18대대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
제937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
미 제24사단 포병연대	미 제24사단	18·27포병대대 화력증원	화력증원
제31포병대대	미 제7사단 포병	사단 일반지원	-
제18포병대대	국군 제2사단	사단 직접지원	-

* 출처 :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158-167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105.

33) 미 제9군단 일반지원과 동시에 지정된 포병부대를 화력증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공군에 비해서 많은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연대의 경계지역이 용문산으로부터 12-17km 이격된 점은 화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당시 국군 제6사단을 화력지원한 포병부대 진지제원은 아래와 같다.

<표 2> 1951년 5월 18일 기준 포병부대 진지제원

포병대대	진지 좌표	사거리	이격거리 / 사격가능여부	
			경계지역 (북한강)	주방어지역 (용문산)
린다·루 특임대	CS 610 622	14.6km	13.0km / ○	6.6km / ○
제27포병대대	CS 757 548	11.3km	21.0km / X	9.8km / ○
제92포병대대	CS 760 544	14.6km	21.5km / X	10.4km / ○
제987포병대대	CS 755 547	11.3km	21.0km / X	9.8km / ○
제213포병대대	CS 645 546		19.6km / X	10.4km / ○
제674포병대대	CS 645 554	11.3km	18.8km / X	9.7km / ○
제31포병대대(미7사단)	CS 793 597	14.6km	18.7km / X	9.4km / ○

* 출처 :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164-178 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군 제6사단이 활용할 수 있었던 모든 포병부대는 주방어지역인 용문산 일대로는 화력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제2연대가 점령한 경계지역 최초진지인 북한강과 홍천강 일대에는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화력지원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은 ‘린다·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Lindy Lou, 이하 린다·루 특임대)’를 편성 및 추진 배치하여 경계지역에 위치한 국군 제2연대의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린

다·루 특임대³⁴⁾로부터 제2연대 제2대대까지 이격거리는 10-13km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국군 제2연대의 우전방을 담당한 제1대대의 경우 이격거리가 15-18km에 달해 화력지원이 불가능하였다.³⁵⁾ 그로 인해 제1대대에는 처음부터 관측반이 파견되지 않았으며³⁶⁾, 중공군이 도하를 시작하던 시점에 자체 보유한 박격포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제한사항을 국군 제6사단은 물론 미 제9군단까지 인지하고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고, 제1대대 역시 공군이 지원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기에 중공군 제1제대 사단의 도하와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제2연대의 좌전방에서도 미 제5공군이 청평댐-호명리-고성리 일대에 10여 차례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공군의 도하를 저지하고 막대한 손실을 강요할 수 있었다. 도하 수단을 상실한 중공군은 병력 손실을 감수하고 도보로 제방을 이용해 북한강을 건너 22시경 울업산 남서측의 신천리로 접근하였으나, 제2대대장이 박격포의 포구방향을 신속히 남서측으로 전환하여 조명사격을 지시하고 제2대대 포병 관측장교 하태환 소위가 사전 계획된 최후방어사격을 요청하였으며, ‘린다·루 특임대’가 화력을 지원함으로써 저지당하였다. 신천리 일대는 평지였기에 화력 지원은 효과적이었고 적의 공격은 일시 중단되었다. 대대장은 적의 공격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대대 관측소를 울업산 신선봉에서 신천리 일대를 감제 할 수 있는 219고지(CS687707)로 이동시켜

34) ‘린다·루 특임대’는 4개 진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점령했는가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졌다.

35)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p. 37.

36) 일반적인 경우 제1대대에도 관측 1개반이 파견되어야 하나 처음부터 이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전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포병 화력계획이 없었고, 제2연대와 제1대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p. 69-70.

양호한 관측여건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중공군이 19일 04:30경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1951년 5월 17일 야간부터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경계지역 최초진지 전투에서 제2연대는 ‘린디·루 특임대’의 포병 화력지원과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진지로 접근하는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강력한 화력은 중공군 제63군이 국군의 방어지역을 오판하는 결과를 유발하였고 주력의 조기 투입을 유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화력은 철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1대대는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네이팜탄 투하와 기총 소사로 중공군 공세가 느슨해진 틈을 타 포위망을 탈출하여 나산의 축차진지를 점령하였고,³⁷⁾ 제2대대도 19일 19시경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축차진지인 427고지로 철수하였다.

이어지는 중공군 총공격으로 축차진지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국군 제2연대의 축차진지를 지나는 유일한 통로인 위육골 일대에 사전 준비한 치밀한 화력계획은 국군 1개 연대가 중공군 1개군의 총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국군 제2연대가 사전 구축한 견고한 방어진지는 진내사격에도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공군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 있게 해주었고, 포병대대와 박격포의 지속적인 조명지원사격은 야간전에서의 중공군에 대한 공포와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중공군은 전진할수록 그동안 사거리가 미치지 않아 사격하지 못하고 있던 미군 포병대대의 사격까지 받게 되면서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³⁸⁾ 이 날 제2연대를 지원한 포병이 소모한 탄약은 정확한 수량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통제보급율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

37) 앞의 책, pp. 71-72.

38) 앞의 책, p. 134.

인다.³⁹⁾

중공군의 피해는 제6사단 전투상보에서는 전사 500-600명, 육본 정기 작전보고 제143호는 전사 2,000명, 미 제8군 정기 작전보고는 1,128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⁰⁾ 미 제9군단 포병 보고서에 따르면 군단 전 지역에서 화력에 의한 중공군 전사자만 9천여 명에 달하며, 국군 제6사단 지역의 포병 화력지원 임무는 약 2,500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¹⁾ 기록 별로 전과가 상이하여 정확한 전과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포병 화력지원으로 인한 중공군 전사자가 만 명에 가깝다는 것은 라주바에프가 평가했듯이 유엔군 포병 화력지원의 효과가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3. 화력운용 분석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 운용을 전투 경과와 함께 살펴보았지만 깊이 있는 전투사 연구를 위해서는 분야별 분석과 평가가 필

39) 미 제9군단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18시부터 20일 18시까지 제27포병대대와 증원 포병이 보고한 탄약 소모량은 약 5,500발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에는 증원포병이 사격한 것까지 포함하여 약 3만 발을 사격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에 수록된 예)대령 고기환의 증언에 따르면 제27포병대대만 하루 6,000-7,000발을 사격했다고 한다. 당시 과도한 사격으로 화포가 과열되어 발생한 근탄에 우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더 많은 탄약 보급을 위해 탄약을 은닉하거나 재고량을 허위보고하는 행태가 잔존했다는 기록도 있어 참전자의 증언이 실제 탄약 소모량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기준, (2006), p. 40.

40) 위의 책, p. 113.

41)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164-178.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pp. 352-353.

요하다. 화력 운용은 단순히 포탄 사격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화력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화력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은 화력의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하였다.

가. 탄력적인 화력지원체계 구성 및 운용

6·25전쟁 당시 미군 포병 교범에 따르면 포병의 지원관계 유형은 직접지원, 화력증원, 그리고 일반지원이라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국군 제6사단의 ‘직접지원(DS, Direct Support)’⁴³⁾ 포병대대는 제27포병대대였으며, 보병연대에는 연락장교를, 각 보병대대에는 관측반을 파견할 의무가 있었다. 미군 보병사단의 경우 사단에 4개 포병대대가 예속되어 있어, 각 연대마다 1개 포병대대(105mm)가 직접지원하고, 사단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지원 포병대대(155mm)도 1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던 반면, 1952년 이전까지 국군 보병사단은 사단별 1개 포병대대(105mm) 밖에 보유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화력지원체계를 편성할 수 없었다.

미군의 고민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주로 국군 보병사단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국군의 포병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은 미군 군단이 보유한 포병자산을 국군 보병사단을 위해 지원하는 ‘화력증원(RF, Reinforcing Fire)’⁴⁴⁾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문산 전투에서 제27포병대대는 미 제9군단 포병인 제92, 제987포병대대의 화력

43) 군사용어사전은 직접지원을 “지원부대가 지정된 특정부대만을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육군본부, 『야전교범1-1 군사용어』, p. 183.

44) 군사용어사전은 화력증원을 “포병부대가 타 포병부대에 화력 증강의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의 책, pp. 174-175.

증원을 받았고, 제27포병대대 지휘소에 증원포병 연락반이 파견
와서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군 제6사단은 미군
포병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용문산 전투 기간 압도적
화력을 운용할 수 있었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공군 제63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자
국군 제6사단은 더 많은 화력지원이 필요하였다. 이때 미 제9군
단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지원(GS, General Support)’⁴⁵⁾
포병을 국군 제6사단 지역에 추가로 지원하였다. 일반지원 포병
인 미 제17, 937포병대대는 각각 8인치, 155mm 곡사포 부대
로⁴⁶⁾, 중공군이 청평댐을 횡단할 때와 국군 제2연대의 진지가
돌파당할 위기에 처했던 5월 19일 야간부터 20일 새벽까지 화
력을 지원해주었다.⁴⁷⁾

특이하게도 국군 제6사단 우측의 미 제7사단을 지원하는 포병
인 제31포병대대도 부대 임무 상 국군 제27포병대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을 지원해주었다. 제27포병대대는 미 제
7사단 포병연대와 유선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증언록에 따르
면 타 사단의 연락장교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화력지원을 해주었
다.⁴⁸⁾ 이를 미루어 볼 때 교리상 포병 지원관계에는 없는 개념
이지만 상황이 위급하고 군단장의 관심 지역이었으며, 서측의 국
군 제2사단과 동측의 미 제7사단의 전투전초는 먼저 철수하여

45) 군사용어사전은 일반지원을 “지원부대가 소속된 상급부대 또는 피지원부대의 예하
부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의 책, p. 124.

46) 일반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포병부대는 군단 전 지역에 대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하기에 통상 장사거리의 대구경 화포를 보유한 부대가 지정된다.

47) 미 제17, 제937포병대대는 최초 사거리가 닿지 않아 국군 제6사단에 대한 화력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중공군이 주방어지역 전방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사격이 가
능해졌다.

48) 좌측의 국군 제2사단은 1개 포병대대밖에 보유하지 못하여 타 사단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나, 우측의 미 제7사단은 일반지원 포병대대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
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해당 사단들은 화력지원 부담이 적었던 만큼 미 제7사단에서도 가용한 화력을 지원해 주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국군은 충분한 포병자산을 보유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화력지원체계 역시 갖추어지지 않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군은 이 점을 고려하여 용문산 전투에서는 교리에 고착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화력을 운용함으로써 국군이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시적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고 1952년부터 국군 포병자산 증강과 야전포병단 창설 등을 통해 미군에 가까운 화력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군 보병사단은 백마고지 전투, 금성지구 전투 등에서 국군 독자적인 화력 운용만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격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나. 린디·루 특수임무부대(Lindy·Lou Task Force) 운용

1951년 5월 3일, 미 제9군단 포병 지휘관 길모어 준장(William N. Gillmore)은 구두명령을 하달하여 ‘린디·루 특임대’를 편성하였다.⁴⁹⁾ 미 제92포병대대 대대장인 라부이 중령(Lt. Col. LaVoie)이 특임대장을 맡았으며, 미 제92포병대대 A포대(155mm M41 자주포), 미 제987포병대대 A포대(105mm M7 자주포), 국군 제27포병대대 B포대(M2A1 105mm 곡사포),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2대대, 미 제194공병대대 A·B중대와 미 제74공병대대 A중대가 배속되었다.⁵⁰⁾ 보병대대의 임무는 특임대의 진지를 둘러싸고 공세적 정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25.

50)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57-58, 133;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1), pp. 182-184.

찰을 수행하여 경계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공병중대의 임무는 기동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미 제9군단의 작전지역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었고 폭우까지 내려 도로상태가 불량하였다. 따라서 도로 정비를 통해 특임대의 이동 여건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범위는 군단 후방지역으로부터 청평담에 이르는 도로였다.⁵¹⁾

미 제9군단은 중공군 5월 공세를 대비하면서 1개 포병대대만을 가진 국군 보병사단의 능력으로는 경계지역 연대에 대한 충분한 화력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게다가 경계지역이 주방어지역으로부터 12-17km 북쪽에 위치하여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병을 추진하여 운용하다가 점차 후방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경계지역에서부터 후방으로 이동할 도로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국군 제6사단 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2사단을 직접지원하는 제18포병대대가 동해안에서 양평으로 이동 중에 있어 제2사단을 지원할 포병이 없다는 것이었다.⁵²⁾ 따라서 ‘린디·루 특임대’는 제2사단의 경계지역 연대를 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제6사단의 경계지역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⁵³⁾

특임대는 경포(輕砲)인 105mm와 중포(中砲)인 155mm로 혼성 편성되었다. 국군 제6사단까지 화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긴 사거리를 가진 155mm 화포가 필요했으나, 불량한 도로상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105mm 자주포와 곡사포를 혼성 편성하였다. 이러한 편성에 대해 미 제92포병대대 매팅글리 중위(Leroy B. Mattingly)는 전술적·행정적 측면에서 단일 유형의 포병대대보다 작전이 더 복잡했으며 국군 부대를 통제하기 위해 통역사도 필요한 점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51)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2011), p. 184.

52) 앞의 책, p. 183.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36.

이들의 진지는 A, B, C, D 등 4개 진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비가 내려 미 제9군단에서는 도로상태를 걱정하였고, ‘린디·루 특임대’는 5월 4일 A진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수색대를 편성하여 도로를 정찰하였다. 실제로 M41 자주포가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우선 105mm 포대만 더 전방에 위치한 C진지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공병이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5월 12일 도로가 정비되어 전 포대가 집결하였고, 5월 14일에는 청평담까지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정비되었다.⁵⁵⁾

5월 16일 야간, 미 제24사단 전방에서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국군 제2, 제6사단 전방 북한강 대안에서도 중공군과 접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임대는 요청에 따라 청평담과 그 접근로에 대한 증원차단사격을 실시하였고, 5월 17일 03:30부터 09:30까지 105mm 1,100발과 155mm 450발을 사격하였다. 같은 날 아침, 국군 제2사단이 감청한 중공군의 무선통신 중에는 포병 화력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고지대에 대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 청평담 횡단을 지속 시도하여 약 300명이 14:00에 횡단에 성공하였고, 추가 횡단을 막기 위해 군단의 다른 포병 부대들도 사격에 가세하였다.⁵⁶⁾

중공군의 총공격이 시작된 5월 19일 16:30부터 다수의 사격 요청이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군단은 모든 가용 포병을 활용하여 화력을 지원하였다. 이날 특임대는 105mm 2,500-3,000발, 155mm 1,300-1,400발을 사격하였다.⁵⁷⁾ 5월 21일 01:00에 이

54) 위의 책, p. 193.

55) 앞의 책, pp. 186-187.

56) 앞의 책, pp. 189-192.

57)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 174;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2011), p. 192.

르자 중공군의 공격은 소강되었으며, 그날 아침 평터화이가 전선선에 대한 철수를 지시하면서 전투가 마무리되었다.

라부이 중령은 후에 이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군, 특히 제2사단 제31연대와 소통이 미흡했으며, 협조되지 않은 작전으로 인해 부대가 고립될 위기에 처하거나 우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박격포도 사용하지 않았고, 철수하면서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공간사에서도 제2연대의 경계연대가 모두 철수했다는 기록을 볼 때, 제31연대는 전투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또한 ‘린다·루 특임대’와 같은 임시 혼성편성부대는 다수의 상급부대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된 지휘가 불가능했으며, 편제장비와 보급체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미 제92포병대대 단일로 편성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⁹⁾

‘린다·루 특임대’는 임박한 대규모 적의 공격, 부족한 아군의 화력자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기상과 지형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편성된 혼성부대였다. 비록 전투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압도적 병력을 압도적 화력으로 침묵시킴으로써 중공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다. 관측반 운용

관측반 운용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6·25전쟁 당시 사용한 미군의 포병 교범⁶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교범에서는 모든 관

58)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p. 4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p. 553.

59) 위의 책, pp. 193-195.

60)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측자가 충분히 깊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아군 포병부대가 사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군 포병부대의 사거리를 벗어난 지역을 점령했던 국군 제2연대 제1대대에 관측자가 파견되지 않은 것은 누락이거나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당시 미군 포병 교리에 근거하였던 것이다.⁶¹⁾ 하지만 사거리가 닿지 않는다고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범 9장 항공지원에 “공군이 포병 사거리를 벗어난 표적을 타격하며, 결정적 국면에서 포병의 화력을 강화해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⁶²⁾고 명시한 것을 볼 때, 제1대대에는 공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을 계획함으로써 화력 운용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1대대는 미 제5공군 F-51 편대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함은 물론, 피해 없이 축차진지로 철수할 수 있었다.

용문산 전투에서 활용한 관측 방법은 전방 관측자에 의한 관측과 항공기에 의한 관측이었다.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전방 중대급 기동부대에 전방 관측자⁶³⁾를 보내야 하며, 대대급 기동부대로 파견된 연락장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군은 여건이 불비하여 대대에 관측장교를, 연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 다만 경계지역을 담당한 국군 보병연대들은 직접지원 포병대대의 관측자뿐만 아니라 ‘린디·루 특임대’의 관측자도 지원 받아 화력유도 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⁴⁾

61) 앞의 책, p. 18.

62) 앞의 책, p. 34.

63) 전방 관측자의 최우선 임무는 적 부대를 관측하고 화력을 유도하는 것이며, 다음은 포병부대가 전선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해주는 것이었다.

64) 국군 제2사단 제31연대에는 허츠(Hertz) 소위, 제6사단 제2연대에는 버너블(Venable) 소위가 파견되어 ‘린디·루 특임대’와 통신망을 연결하고 화력 유도 임무를 수행하였다.;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p. 189.

항공 관측은 군단이 자체 보유한 경비행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미 제9군단 예하 포병대대가 보유한 항공기는 L-19 기종으로⁶⁵⁾, 활주로나 없는 야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었다.⁶⁶⁾ 이들은 상공에서 표적을 관측하는 임무와 항공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항공 관측은 전방 관측자가 발견할 수 없는 후방지역에 위치한 적 포병자산을 식별하여 대포병 사격 표적을 제공하는 것과 정확한 화력유도, 화력에 의한 적의 피해를 확인함에 있어 당시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관측반은 포병 화력을 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그간의 연구에서는 소외되었다. 관측반은 단순히 포병의 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동부대와 포병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전방 작전상황을 공유해줌으로써 포병 작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 또한 관측반 인원들의 숙련도와 적절한 장비의 구성은 화력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적의 기동부대는 물론, 화력 자산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하지만 포병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환경 속에서 관측반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라. 작전지속지원

포병 작전에서 군수는 지휘관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화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탄약과 유류 문제가 달려있으며, 수시로 정비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작전지속

65) 1951년 5월 12일 기준, 미 제9군단 포병여단 예하 항공관측용 L-19는 모두 11대였으며, 포병여단 본부 3대, 제17, 제92, 제987, 제213포병대대가 각각 2대씩 보유하였다.; IX Corps Artillery, *Book VII,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 24.

66)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p. 21.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는 반대로 공간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용문산 전투 뿐 아니라, 1951년 이후 모든 전투에서 포병 탄약 보급 문제는 심각하였다. 통제보급율의 5배까지 사격하는 “밴 플리트 사격”을 실시하게 되면서 탄약 보급 문제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국군의 경우에는 차량도 부족하여 탄약을 수송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당시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군수보급체계 운영은 미 제8군 담당하였으며, 국군 부대의 군수업무도 미 군사고문관이 관장하였는데⁶⁷⁾, 다행히 이들이 탄약 재보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제27포병대대의 군사고문관 카스트로(Castro) 소령과 미 제9군단 탄약장교, 군단 수송부대가 긴밀히 협조해주었다. 6·25전쟁 기간 전방으로의 탄약 수송은 열차로 이루어졌는데 지평리 탄약집적소가 중부전선을 지원해주었다는 것을 보아⁶⁸⁾ 지평역⁶⁹⁾에서 탄약을 하역했을 것이다. 지평역은 제27포병대대와 약 10km 이격되어 있어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왕복 3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나, 차량에 탄약을 적재 및 하역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왕복 4시간이 소요되었다. 제27포병대대가 보유한 탄약차는 6-7대에 불과하였으며 대당 120발 정도밖에 적재할 수 없어 24시간 운용하여도 4,300-5,000발 보급이 한계였고, 6,000-7,000발에 달하는 일일 탄약 소모량을 따라갈 수 없었다.⁷⁰⁾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군사고문관 계통으로 보급에 대한 행정처리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미군 수송부대가 탄

67) 국군은 군수 분야에서 행정상 오류와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미 군사고문관에 의해 직접 관리되었다.; 김기준, (2006), p. 45.

68)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p. 39.

69) 지평역은 1940년 4월 1일부터 운영되었으며, 용산역과 청량리역으로 철로가 연결되어 있어 보급선을 유지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https://www.letskorail.com/ebizprd/stationMainList.do#>. (검색일: 2021.06.04.).

70) 위의 책, p. 39.

약 수송을 지원해주었으며 탄약집적소도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한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었다.

과도한 사격은 화포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지속된 사격으로 인해 화포의 포신이 과열되었고 이로 인해 근탄이 발생하곤 하였다. 문제는 근탄이 아군 방어진지로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국군 제2연대 제5중대 지역에서 중공군에 대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엄폐호 외부에 있던 일부 인원들에게 아군 포탄이 낙탄되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차 후 조사에 따르면 가열된 포신 때문에 발생한 근탄으로 확인되었는데⁷¹⁾, 당시 참전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제27포병대대 포대장들도 장비 고장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지속 실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²⁾ 화포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마모가 발생하며, 이를 적절히 정비해주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용문산 전투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지속되는 사격으로 적절한 정비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작전기간 중 내린 폭우도 군수 문제를 가중시켰다. 폭우로 망가진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3개의 공병중대가 투입되어 보수하였지만, 짧은 정비시간으로 인해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5월 12일 이동중이던 ‘린디·루 특임대’의 미 제92포병대대 A포대 M41 155mm 자주포 1대가 영성하게 보수된 도로 가장 자리에 빠지고 말았고, 이를 구난하는데 16시간이 소요되었다.⁷³⁾ 당시 중공군의 공격이 있었다면 해당 지역에 있던 모든 부대가 자주포 구난으로 인한 도로 폐쇄로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pp. 84-85.

72) 위의 책, pp. 105-106.

73)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pp. 186-187.

‘린다·루 특임대’는 전방으로 추진된 것으로 인해 급식도 문제가 되었다. 임시 혼성편성부대였기 때문에 자체 취사반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만약 편성되었더라도 취사장은 잦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근접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 제92포병대대 A포대장이었던 게러티 대위(John F. Gerrity)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식은 주방어선 후방에서 조리되어 매일 3회, 편도 24km 거리를 달려 추진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⁷⁴⁾

작전지속지원의 문제는 전투사 연구 시 종종 간과하게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 부분의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특히 포병부대는 작전지속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운용 분석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동부대 위주 전투사 연구는 전투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였지만, 기동 외 다른 분야 및 기능의 세부적인 모습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국군과 유엔군 화력운용의 세부적인 모습과 운용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 포병부대가 단순히 포탄 사격만 우수하게 실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작전 준비과정부터 치밀하게 화력계획을 작성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미리 정비하였으며, 화력지원이 제한된다면 특임

74) 위의 책, p. 188.

대를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상급 지휘관의 의지가 있었다. 작전 실시간에는 장비가 고장나고 탄약이 부족해도 끝까지 화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포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군은 당시 교범에 입각하여 화력지원을 수행하였는데, 영웅적 인물에 의한 극적인 승리나 영화같은 기동전이 아닌 교과서적인 작전 수행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전투사에서 흔히 접하는 ‘강력한 화력 운용’이라는 용어 뒷편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점도 식별되었다. 국군 포병 자산의 불비로 인해 정상적인 화력지원체계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이는 중공군의 공세에 국군 사단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작전 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우군 피해가 발생하거나 작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은 용문산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사례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개선되는데, 만약 식별된 문제들을 단순한 또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였다면 현재의 국군은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투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방대한 사료에 비해 아직 화력운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포병이 주목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관심 부족도 있지만, 병과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일반 연구자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크다. 향후 화력 운용에 대한 연구방법이 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전투들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IX Corps Artillery, Book I, Command Report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IX Corps Artillery, Book III, Staff Section Journal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IX Corps Artillery, Book VII,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2. 공간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용문산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서울: 육군 군사연구실, 1987).

3. 단행본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한글개정판 UN공군사 (상권): 한국전쟁 (1950.6.25. ~1952.6.30.)』, (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7).

나종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서울: 양서각, 2018.

<http://uci.or.kr//G901:A-0009247898@N2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_____,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경기: 집문당, 2011).

<http://uci.or.kr//G701:B-00047957351@N2M>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2).

<http://uci.or.kr//G901:A-0006405848@N2M>

_____, 『중국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7).

육군본부, 『야전교범 운용-4-19 105밀리 포병대(자주)』, (계룡: 육군본부, 2018).

_____, 『야전교범1-1 군사용어』, (계룡: 육군본부, 2019).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 (전남: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2014).

Bowers, William T. · Greenwood, John T.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1).

Braim, Paul, 육군교육사령부 역,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 (계룡: 육군교육사령부, 2001).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조상근 역, 『한국전쟁에서의 전투지원: 1950.6.27 ~ 1953.7.27.』,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2008).

<http://uci.or.kr//G901:A-0006234104@N2M>

4. 논 문

정명복, “6·25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군사』 제71호(2009): 111-149.

<https://doi.org/10.29212/mh.2009..71.111>

- 나종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105호 (2017): 45-93,
<https://doi.org/10.29212/mh.2017..105.45>
- 조남준,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 - 포병운용을 중심으로 -”, 『군사』 제117호(2020): 47-92,
<https://doi.org/10.29212/mh.2020..117.47>
- 최영근, “6·25전쟁 용문산 전투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중국군의 패배 요인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7집(2019): 115-142,
<https://doi.org/10.17934/jmhs..148.201912.115>
- 김기준, “6·25전쟁 분석을 통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http://uci.or.kr//G901:A-0005289950@N2M>

(Abstract)

A Study on the Fire employment of the R.O.K. Army and U.N. Forces during the Battle of Yongmunsan in May 1951

Ryu, Eui-yeon

This study attempts to research the fire employment of the 6th Infantry Division of R.O.K. Army and the 9th Corps of U.S. Armed forces in the Battle of Yongmunsan from May 17 to May 21, in 1951.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mbat has been carried out mainly in terms of maneuver, and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firepower is insuffici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Korean War, the analysis of firepower was a key factor throughout the whole wa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ield artillery tactical manuals, command and control systems, weapons systems, and support systems of the artillery units of the U.N. Forces at that time. For that, this study analyzes the ROK 6th Division's combat reports, official publicized histor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rmy, testimonies of artillery veterans, records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and reports of Soviet military advisers, and reports of the U.S. 9th Corps.

In the Battle of Yongmunsan, the U.N. Forces was able to stop the large-scale offensive operation carried out by Chinese forces based on the standard of using firepower, limitation by terrain and weather conditions, overwhelming artillery capabilities compared to the enemy, and sufficient logistics support. There were various problems during operations, but they were overcome by flexible firepower operations that were not fixed. Due to the strong and effective use of firepower, the 2nd

Regiment of the ROK 6th Division was able to defeat the 63rd Army of China, which was three times larger.

Keywords : The 6th R.O.K. Division, The 9th U.S. Corps,
Battle of Yongmunsan, Fire employment, Artillery